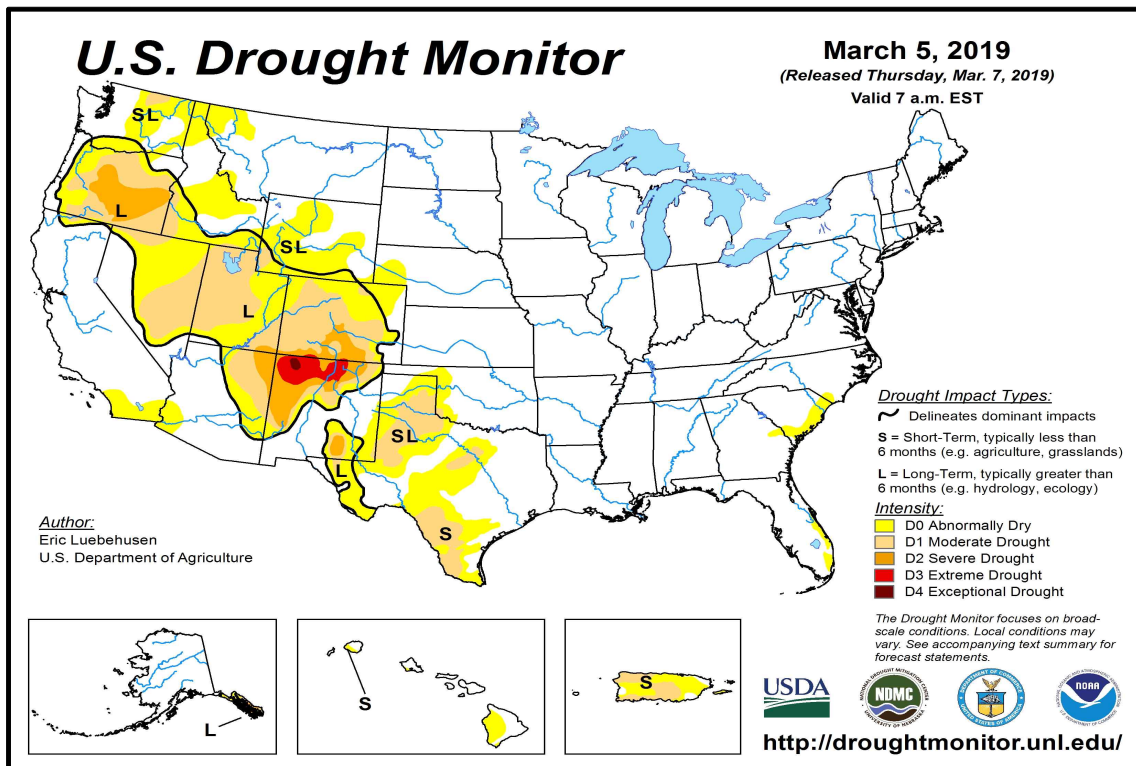


3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49)

□ 미국 기후 현황(2/24~3/2)

강력한 태평양 폭풍으로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로키 산맥 북부를 이르는 지역까지 폭우가 쏟아져 강수량이 급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 강과 몇몇 다른 분지들이 범람했다. 한편, 폭설로 인해 Sierra Nevada와 남부 Cascades, 그리고 오리건 주에 있는 사막과 저지대 유적지를 포함한 북서부 내륙 일부가 매몰되었다. 동시에 소나기가 걸프 만과 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남부 중기 전역에 걸쳐 폭우가 내렸다. 반면, 북쪽으로 가면서 북부 및 중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는 극심한 추위가 이어졌고, 주간 기온은 평소보다 낮은 10~35°F를 유지하고 있다. New England 뿐만 아니라 북서부 지역에서도 기온은 낮은 반면, Great Basin, Rio Grande 계곡, 동남부는 따뜻한 날씨를 이어갔다. 남동부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10°F나 높았다. 다른 곳에서는 가뭄이 지속되어 남부 고원지대까지 영향을 미쳤고, 방목장, 목초지, 겨울 밀의 상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2/24~3/2)

극심한 추위가 중부지방을 덮고 미국 동부와 서부지방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남동부에 내린 비는 건조함을 국지적으로 완화시켰고, 서부의 폭풍우 같은 날씨 패턴이 계속되면서 태평양 연안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는 지역은 가뭄이 완화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기 건조는 미국 중남부, 특히 텍사스 중심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 세계 기후 현황(2/24~3/2)

■ 유럽: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대부분의 대륙을 휩쓸었다. 가벼운 소나기(120mm)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슬로바키아로 가는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며 대부분 5mm 미만이었다. 유럽 전역의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보통 37°C)는 영국과 프랑스의 초기 겨울 작물 개발을 촉진시켰고, 밀과 유채는 독일에서 북부 발칸 지역으로 휴면을 깨뜨렸다. 수분 공급은 일반적으로 중부 및 동부 농작물 지역의 봄 성장에는 충분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단기간에 가뭄이 심해졌다. 지난 90일 동안 스페인에서 내린 비는 평상시의 25~5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곡물은 수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밀과 보리는 일반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3월 하순부터 4월에 번식한다.

■ *구소련(서부): 2019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9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은 계속 괴롭힘을 받았다. 여름작물 수확은 보통 3월 1일 경에 시작되지만, 잦은 더위와 지속적인 건조는 농작물의 성숙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수확이 시작되었다. 지난주 계속되는 건조는 여름작물 건조에 유리했고 지속적인 수확을 촉진했다. 성장기 동안 약천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후반 단계에서 강우량으로 인해 수확량 전망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겨울 작물 재배에 앞서 토양 수분 분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강수량이 절실하다. 평년보다 온난한 기후의 몇 주 후에, 호주 동부의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거의 정상에 가까웠다.

■ 아르헨티나: 며칠 동안 계속된 소나기가 내린 후, 건조하고 맑은 날씨는 이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성숙한 여름작물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전반적으로 더 건조한 날씨가 발생하기 전에 Entre Rios와 중앙 Cordoba의 북부(Chaco 동부 면화 지역 및 Formosa 북서쪽 구역 포함)에서 지난 시즌 작물 개발을 위한 강수량이 10~50mm 이상 증가했다.

그에 반해서 La Pampa, 남부 Cordoba 그리고 Buenos Aires의 서부와 중앙의 농경지는 주 내내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었고, 주말에는 동부 Buenos Aires에서 소나기(10mm)가 발생했다. 주간 기온은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은 평년과 비교한 최저기온(보통 최고 4°C)을 기록했으며, 야간 최저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거나 낮아지는 등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말까지 기온이 상승하여 남부 생산지역은 30°C이하, 북부 30°C이상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2월 27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률은 41%를 기록하고 있다.



■ 브라질: Mato Grosso 남쪽에서부터 Rio Grande do Sul까지 대부분의 농경지에 25~100mm의 비가 내렸다. 비슷한 양의 비가 북동부 내륙의 많은 지역에 내렸지만, 남부 Tocantins와 서부 Bahia 근처는 건조했다. 여름철 온기(주간 최고치가 상위 30°C에 달함)는 높은 수준의 농작물 수분 사용량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의 작물에 습기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온도는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미숙한 작물을 선호하는 것 외에도, 수분이 생겨나는 옥수수에 적기였다.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은 87%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p 낮은 수치이다.